

격려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박범훈의 소리 인연(緣) 50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범훈 선생은 국악계의 명장으로 불리우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작곡과 지휘를 도맡아 세계속에 전통음악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중앙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하여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한·중·일 아시아 오케스트라 창단 등, 우리의 국악을 세계적으로 널리 소개하는데 선두적 역할에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평생 후학을 양성하는데 진력하고 많은 불교 음악을 작곡하여 불교계에서도 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공덕으로 재가불자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선혜품계를 품수한 불제자로서, 앞으로 불교음악의 최고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분이기도 합니다.

박범훈 선생이 불교음악의 증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진면목을 한층 깊이 완성할 수 있기를 많은 불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훈의 소리緣 50년’을 연주하는 여러분의 소리가 온 세상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연주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지휘자, 협연자, 관현악단을 비롯한 제작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격려와 축원의 마음을 드립니다.